



한덕수 총리, 전남 광양의 유일한 분만병원 방문 “365일 3교대 하며 버티는 의료진 노고에 감사 지역·필수의료 살아날 때까지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”

- 산부인과 없는 지자체 전국 22곳, 산부인과만 있고 분만실 없는 지자체 50곳
- 한 총리, 29일 광양 미래여성의원 의료진 격려하고 산모들에 배내옷과 손편지 선물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9일(금), 전남 광양의 유일한 분만 산부인과인 광양 미래여성의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산모들을 응원했다.
 - 한 총리는 이날 최주원 대표원장(67)등 미래여성의원 의료진을 만나 “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분만 산부인과를 유지해온 노고에 감사드린다”면서 “지역·필수의료를 지키는 일이 더는 괴롭지 않게 되는 날까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 - 한 총리는 또 미래여성병원에서 최근 아이를 출산하고 회복중이거나, 조만간 분만 예정인 산모들과 만나 한 분 한 분에 아이의 태명이 적힌 손편지와 배내옷을 전달하며 “엄마와 아기 모두 건강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- 광양은 전체 인구 15만명으로, 산업 기반이 탄탄해 18세~45세 청년인구 비율(34.7%)이 전남에서 가장 높고 매년 청년층 중심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지만 관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은 이곳 뿐이다.
 - 미래여성의원은 산부인과 의사 3명이 365일 3교대로 24시간 분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. 지난해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기는 832명으로, 이중 광양 시내에서 태어난 아기 221명(26.5%)은 모두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 중 한 명 손에 안겨 첫 숨을 쉬었다. 나머지 지역 산모들은 분만실을 찾아 인근 대도시로 갔다.

○ 최 원장은 “분만 병원을 유지하려면 3교대가 불가피해 의사가 3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”면서 “3년전 전문의 한 분이 사직해 폐업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”고 말했다. 최 원장은 정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고용해 숨을 돌렸고, 그해 말 소아과 전문의도 추가로 고용해 산모와 아기를 모두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.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광양처럼 분만 인프라가 위태로운 지역에 시설비·장비비·인건비 등을 핀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.

* 지역 여건에 따라 병원당 시설·장비비 총 12억원(1·2차년도), 운영비 5억원(연간) 차등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
□ 미래여성의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의사 3명은 모두 60세를 넘긴 고참 의사들이다. 인근 대도시 대형 산부인과에 근무하다가 은퇴 연령 전후 광양에 왔다.

- 최 원장은 “힘들지만, 우리마저 문 닫으면 광양에 아이 낳을 곳이 없어 진다는 책임감이 있다”고 했다.

□ 한 총리는 “분만 인프라가 무너져 산모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은 사라질 수 있도록 정부가 쉽없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250개 시·군·구 중 산부인과가 아예 없거나(22개)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(50개) 지역은 72개에 이른다(23년 12월 기준).

- 한 총리는 “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, ‘25년 상반기 부터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통해 일선 산부인과 병·의원(분만, 신생아실)과 중증 치료기관의 협력 시스템 및 24시간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”고 약속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	심정환 (044-200-2293)
	사회복지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	고연주 (044-200-2295)

